Track 01

**MAN:** Reading 1, 원예

많은 사람들이 식물 관리에 대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사실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훌륭한 원예사라면 이처럼 정원에 있는 각각의 식물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빠르게 배워 나가고는 한다.

모든 식물이 생존에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식물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오히려 죽기도 한다. 또 어떤 식물은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하는 것이 가능한 한편, 다른 종류의 식물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물을 주어야 산다. 그 밖에도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식물이 존재하기도 한다. 꽃은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한다. 만약 꽃이 자라나는 토양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꽃은 죽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각각의 식물이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도 다르다. 한 식물이 다른 식물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빛을 필요로 하는지는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식물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햇볕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다. 반면에 꽃은 태양을 받지 않는 곳에 있어야 자라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의 햇살은 그 꽃을 무척이나 빠르게 지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예사들 가운데 일부는 식물에게 말을 걸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한다. 그들은 소리를 들려주는 행위가 식물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롭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이 말의 진위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믿건 말건 간에 일부 과학자는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식물은 듣기 좋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Track 02

**WOMAN:** Reading 2, 동물의 종류

세상에는 수많은 종의 동물이 존재한다. 먼저, 척추가 있는 동물이 있고 없는 동물이 있다. 해파리와 같이 척추가 없는 동물은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척추가 있는 동물은 그보다 훨씬 더 늦게 나타났다.

물고기는 척추를 가진 최초의 동물이었다. 물고기는 물에서 생존하며 물의 공기를 호흡한다. 종도 다양하게 많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는 한편, 강에서 사는 물고기도 있다. 또한 무척 큰 물고기도 있고, 대단히 작은 종의 물고기도 존재한다.

오랫동안 물고기만이 유일한 동물이었는데 그 후, 물고기 가운데 일부 종이 물 밖으로 나오면서 육지에서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초창기에 이러한 종의 동물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았다. 즉 물에서의 삶과 육지에서의 삶이다. 개구리가 좋은 예이다. 개구리와 같은 동물은 물속에서 새끼를 낳는데, 성장하면서는 육지로 이동한다.

물 밖에서 새끼를 낳은 최초의 동물은 뱀과 공룡과 같은 동물이었다.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지구의 육지에서 살아간 대단히 커다란 동물 종이다. 그러나 6천5백만 년 전쯤에 멸종하고 말았다. 이러한 동물 가운데 일부는 무척 가벼워지면서 새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날 수도 있었다. 한편, 이러한 새는 온혈 동물에 해당한다.

그다음 동물 종은 온혈 동물이고, 털이 있으며 새끼에게 수유할 젖을 만든다. 여기에는 개와 고양이, 말, 그리고 인간이 포함된다. 인간은 대개 스스로를 동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는 동물이다.

Track 03

**MAN:** Reading 3, 붉은 바다거북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북이는 붉은 바다거북이다. 오래 산 붉은 바다거북의 경우에는 그 무게가 약 200킬로그램에 육박하며 길이도 1미터에 달한다. 그러나 이처럼 커다란 거북이가 오늘날 죽어가고 있다. 과연 이 아름다운 동물을 돕기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붉은 바다거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바로 낚시이다. 거북이는 어망에 들어가 그 상태로 죽게 되는데, 이는 거북이가 어망을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붉은 바다거북은 물속에서 어망을 잘 보지 못해서 쉽게 잡히고 만다. 존 왕이라는 한 남자는 이러한 문제에 변화를 주어 거북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어망에 작은 전등을 설치하면 거북이가 어망을 피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붉은 바다거북은 바닷가에서 알을 낳는데, 이 새끼 거북이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들은 불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과거에는 그 빛이 물 위의 달과 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 거북이는 그 빛을 따라서 물속으로 안전하게 이르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빛의 진원이 바닷가 마을이 되었다. 따라서 새끼 거북이는 그 빛을 따라가다 결국 죽고 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마을에서 흘러나오는 빛의 색을 바꾸는 것이다. 즉 마을에서 백색광이 아니라 황색 계열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거북이가 그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 거북이는 어두운 황색 빛 계열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그 대신 바다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간단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결국 이것으로 우리는 친근한 거북이를 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Track 04

**WOMAN:** Reading 4, 지진

지구의 땅이 움직일 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진이라고 부른다. 지구 바깥 층의 구조는 판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단히 큰 조각의 땅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으며, 때로는 서로 힘을 가하여 밀고 부딪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미는 힘이 지나치게 큰 경우, 판은 재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진을 일으킨다.

지진은 판들이 서로 부딪치면서 움직이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장소 중 하나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이다. 태평양 주변의 다양한 국가들이 이 불의 고리의 일부에 위치한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도쿄와 같은 일부 대도시가 바로 이러한 불의 고리에 속하는 도시이다. 따라서 이 도시에서는 지진이 종종 발생한다.

어떤 지진은 대단히 강력하여 그 힘이 건물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처럼 강력한 지진은 단 10초에서 15초 길이로 지속되는데, 짧은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위력의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긴 시간처럼 체감할 수 있다.

한편, 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지진이 바닷물을 치솟게 만들어 거대한 파도를 만든다. 이처럼 커다란 파도는 육지를 향해 이동하는데, 처음에는 파도가 해저에서 일어나지만 이것이 육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파도를 수면 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때의 파도는 한 채의 건물만큼이나 크고 높다. 따라서 이 파도가 육지를 강타하면 그 위력은 건물을 밀어 그 방향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런 반면, 진도가 너무 작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지진도 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이러한 지진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동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Track 05

**MAN:** Reading 5,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 5백 년 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가 남긴 유명한 그림은 수없이 많다. 그중 하나는 검은색 긴 머리의 한 젊은 여자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이며 현재는 파리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하여 파리로 향한다.

그런데 혹시 다빈치가 화가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는 과학에도 관심이 깊었다. 최초의 비행기가 탄생하기 약 4백 년 전, 다빈치는 비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공중에 떠있을 수 있는 방법을 관찰하기 위하여 몇 시간씩 새가 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에 따라 다빈치는 인간의 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남겼다. 그 그림들 가운데 하나는 헬리콥터에 관한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최초의 헬리콥터를 탄생시킨 아이디어가 되었다.

다빈치는 비행기와 헬리콥터 외에도 전투전에 유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운반용으로 강을 재빠르게 가로지를 수 있는 물체를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고, 커다란 바위를 던질 수 있는 것에 관한 아이디어를 남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적군의 밑까지 땅굴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남기기도 했다.

그가 이처럼 많은 아이디어를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학습량에 있었다. 그는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며,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겼다. 그가 학습에 활용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시체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시체를 구하여 해부를 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체의 구조와 내부에 대한 다양한 그림을 남길 수 있었다.

그가 그린 많은 그림이 생전에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 대다수의 아이디어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

Track 06

**WOMAN:** Reading 6,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미국인이 언제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온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이전 흑인의 권리는 백인의 것보다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적었다. 예컨대, 흑인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백인이 가는 장소에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흑인은 백인과 같은 식당,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으며 버스에서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달랐다. 그들은 버스의 뒤편 좌석에 앉아야만 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모든 이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이바지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폭력으로 저항하고자 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으나 킹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타인을 향한 폭력이 아닌 말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하루는 로사 파크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의 자리였던 앞 좌석에 앉았다. 운전사는 그녀에게 뒷좌석으로 옮기라고 했으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의 흑인과 다수의 백인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버스 회사는 매출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규칙은 바뀌게 되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모든 사람이 만인의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을 해냈다. 그에 따라 수년이 지난 후, 미국은 흑인과 백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그는 1964년에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 후로 오래 살지는 못했다. 1968년, 총에 맞아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Track 07

**MAN:** Reading 7, 바이킹

바이킹은 최초로 북미에 이른 유럽 민족이었다. 그들은 기다란 배를 타고 스칸디나비아에서 북미로 건너왔다. 우리는 바이킹을 떠올리면 바다 민족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들은 농부의 후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배로써 그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일까?

바이킹족은 가족 가운데 장남에게만 가족 경영 농장을 물려주었다. 그래서 장남보다 어린 형제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더 많은 땅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 배에 오른 것이다.

바이킹 사람들은 배를 짓는 소질이 탁월했다. 그들이 만든 배는 튼튼하고 속도 또한 빨랐다. 그래서 바이킹은 이 배를 전쟁 용이나 또 다른 영토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바이킹이 건너간 모든 육지가 “신대륙”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서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 하기도 했다. 그러니 바이킹은 원주민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바이킹은 훌륭한 전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바이킹족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그리고 북미를 방문했다. 바이킹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유럽을 떠나기 5백 년 전쯤 캐나다에 작은 마을을 건설하기도 했다.

아메리카 대륙에 최초로 상륙한 바이킹 사람은 라이프 에릭슨이었다. 오늘날 캐나다에 가보면, 기원후 약 1000년 경에 지어진 바이킹족 마을의 몇 가지 유물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바이킹은 그곳에서는 아마도 10년도 채 머물지 못했을 것이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떠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다음 유럽인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쯤에는 바이킹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Track 08

**WOMAN:** Reading 8, 빌리 홀리데이

빌리 홀리데이는 그녀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최고의 가수였다. 그녀는 블루스와 재즈를 부르는 가수였고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로 감정을 멋지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데에 능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으로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한 것은 44세로 사망한 1959년이 지난 후부터였다. 여타 훌륭한 가수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도 그녀의 생전에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홀리데이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1915년에 태어나 미국에서도 매우 가난한 빈민가에서 자랐다. 그녀는 짧았던 생애 동안 술과 약물 문제에 시달렸고, 무척 불우한 가정생활을 겪었다. 그러나 이처럼 불행한 경험들도 그녀는 사람들에게 노래로써 훌륭한 감정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고는 했다.

가장 잘 알려진 노래 가운데 하나는 “이상한 과일.”이다. 이 노래는 미국 내에서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당시 미국에서 흑인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한다.

그녀가 사망한 이후, 유명세는 점점 더 높아졌다.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고, 고향에는 동상이 세워졌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100세가 되었을 지난 2015년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녀를 추모하기도 했다.

빌리 홀리데이가 사망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녀의 불우했던 삶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 현재 사람들은 그녀를 당대의 여러 가수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훌륭한 가수로, 그리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한 멋진 가수로서 기억하고 있다.

Track 09

**MAN:** Reading 9, 파나마 운하

운하란 보트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든 강과도 같은 곳을 일컫는다. 파나마 국가의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잇는 운하로, 이 덕분에 선박들은 굳이 남미를 둘러서 가지 않더라도 보다 쉽게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프랑스는 1881년에 운하 건설을 시작했다. 공사 작업은 대단히 까다로웠고 여러 가지의 위험요소가 가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작업은 수공으로 이루어졌고, 운하에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높은 벽이 필요했으며 몇 가지의 단계가 있었다.

프랑스는 운하를 완성할 생각이 없었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던 데다가 온갖 위험요소로 가득했고 비용 또한 무척이나 높았던 까닭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1891년에 운하 공사를 중단했다. 그 후 1904년에는 미국이 프랑스가 시작한 이 운하 공사를 매듭짓고자 했다.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는데, 이번에는 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이 운하를 완성할 수 있었다. 1914년에는 최초로 배가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기도 했다. 이 운하 공사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시간은 곧 돈이 아니겠는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것이 가능했다. 이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대서양의 배가 태평양까지 이르려면 남미의 밑부분을 크게 돌아서 가야만 했다. 그래서 최소 몇 개월 정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는 했다. 그러나 이제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면 충분하다.

Track 10

**WOMAN:** Reading 10,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이다. 그 길이는 약 300킬로미터 이상에 달하며 깊이도 1.5킬로미터가 넘는다. 그랜드 캐년은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다. 오늘날에는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최소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랜드 캐년에서는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협곡까지, 혹은 그 근처까지 걸어가는 것을 즐기며, 말타기를 해보기도 한다. 그곳에서는 작은 말을 타고 협곡까지 이동할 수도 있다. 협곡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까지 내려가서 다시 협곡의 상단부까지 돌아오는 데에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에서 캠핑을 즐긴다. 협곡 부근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배를 타고 협곡의 하단부에 있는 강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사실 협곡을 만든 것은 이 강이었다. 콜로라도 강이 바위를 관통하면서 협곡을 만든 것이다. 여기까지의 과정에만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렸다. 협곡에 있는 일부 바위 중에는 그 연대가 무척이나 오래된 것도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협곡의 일부가 20억 년된 것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곧 지구 나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그랜드 캐년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아름다운 형상이며 규모 또한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곡을 실제로 보게 되면 단 하나의 강이 이처럼 커다란 협곡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도통 실감이 어렵다. 그곳에서 살았던 미국 원주민들은 이 협곡을 “카이바브”라고 불렀다. 이것은 “누워있는 산”이라는 의미이다.

Track 11

**MAN:** Reading 11, 산동 동굴

1991년, 호칸이라는 한 남자가 베트남의 정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났다. 호칸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엇인지 보기 위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척 커다란 동굴의 입구를 발견했다. 호칸이 들은 소리는 바로 동굴 안에서 흐르는 강물이 내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굴의 아래로는 내려가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20년 후, 베트남에 있던 영국 출신 과학자들이 칸이 발견한 동굴의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칸에게 부탁하여 동굴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렇게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칸이 단순하게 흔한 동굴을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재빠르게 알아차렸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산동 동굴 말이다.

동굴은 라오스 부근의 베트남 중심지에 위치한다. 그 규모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길이는 5킬로미터 이상에 달하고 몇몇 동굴 속 장소는 높이만 200미터에, 너비는 150미터에 이른다. 또한 동굴은 국립 공원의 일부이다.

동굴 안에는 볼거리가 무척 다양한데, 내부에는 지하 정글도 존재한다. 동굴의 상단부에 난 하나의 구멍으로 햇살이 들어와 만들어진 정글이다.

당신이 만약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동굴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입구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정글의 깊숙한 곳까지 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힘든 일은 그다음부터 시작된다. 사실 그 지점까지 이르는 것만 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동굴의 깊숙한 내부를 들어간 사람보다도 에베레스트산을 오른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이니 말이다.

Track 12

**WOMAN:** Reading 12, 시랜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바티칸 시국이라고 답할 것이다. 이곳은 로마 내에 있는 대단히 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답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더 작은 국가들이 몇몇 더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국가는 시랜드인데, 이곳은 영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약 7.5킬로미터 길이의 국가이다.

시랜드는 집채만 한 크기의 높은 인공 플랫폼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가 만든 여러 가지 작은 플랫폼들 가운데 하나였다.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전쟁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러나 종전 후 플랫폼은 바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다시 활용되지 않았다. 이때 한 사람이 플랫폼들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집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1960년대에 로이 베이츠는 가족을 이끌고 플랫폼 중 하나로 이사를 했다. 그는 그곳에서 살기를 바랐으며 영국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기를 원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에서는 그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에게 플랫폼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로이 베이츠는 영국 영토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영국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이사를 갔다. 이 플랫폼은 영국 정부의 통제 권한 밖에 있는 자유의 공간이었다. 베이츠는 이 플랫폼에 시랜드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자신을 시랜드의 로이 왕자라고 자칭하였고, 그의 아내도 공주로 칭하였다.

1960년대 이래로 시랜드(그러니까 베이츠 가문)는 수많은 역경을 견뎌왔다. 그리고 로이 왕자는 91세의 나이로 2010년에 사망했다. 그 후 시랜드는 로이 베이츠의 아들인 마이클 왕자가 다스리고 있는데, 마이클 왕자는 현재 영국에서 살고 있다.

Track 13

**MAN:** Reading 13, 당신 안의 예술가

예술은 자유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꽤 멋진 방법이다. 만약 당신에게 소질이 있다면 예술 작품을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그림 실력이 피카소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예술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술가를 규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예술가는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다. 예술도 유형은 다양하다. 예컨대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예술이다. 사진을 찍는 것도 예술의 한 유형이다. 또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책을 쓰는 사람도 예술가의 범주에 든다. 그 밖에도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 음식을 요리하는 사람, 심지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까지도 모두 일종의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생각해보면 당신도 일종의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예술가이다. 다음은 전업 예술가를 하고 싶은 이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다. 먼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태생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예술가는 드물다. 대부분의 예술가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다음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타인에게 당신의 작품을 보여주는 데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들에게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아라. 그래서 작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과 동일한 범주의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다.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자. 대부분의 위대한 예술가는 예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다. 그러니 창의적으로 접근해보자!

Track 14

**WOMAN:** Reading 14, 음악 연주 배우기

부모는 보통 자녀가 음악을 배우기를 원한다. 어떤 부모는 음악 연주를 가르치면 자녀가 똑똑해진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가 음악 연주로 직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가 이 둘 중 어느 쪽에 해당되든, 그들은 자녀가 어릴 때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음악 연주를 배우는 데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많은 음악 선생님들은 아이가 다섯 살 내지 여섯 살 때부터 음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개 이 나이대의 자녀를 위해서는 바이올린이나 기타, 또는 피아노를 선택하고는 하는데, 그중에서는 피아노 연주가 가장 어렵다.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배움이 필요하다.

한편, 바이올린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아이가 조금 더 빠르게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 기타나 바이올린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손가락의 위치를 익히는 것이다. 또한 아이는 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음악을 신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음악 연주를 배우는 것은 음악 읽기를 배우는 것과도 그 의미가 상통한다. 에컨대 음악 읽는 법을 배울 때에는 각각의 음이 적절한 시간 동안 연주될 수 있도록 시간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음을 연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몇몇 이탈리아 말, 예컨대 조용하게, 크게, 부드럽게 또는 강하게와 같은 어휘를 익히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음악 연주를 배우는 목적이 타인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인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그러한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대개 연주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낀다.

Track 15

**MAN:** Reading 15, 저항 음악

사람들이 작곡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복 또는 불행한 감정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도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세상, 그리고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 유형의 음악은 정부나 아이디어,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저항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음악을 저항 음악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저항 음악을 불러왔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저항 음악이야말로 그들 삶의 진정한 일부가 되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과 자유, 베트남 전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하여 노래를 불렀다.

저항 음악의 한 가지 예는 미국의 가수이자 작곡가인 니나 시몬이 부른 “재수 없는 미시시피 “이다. 이 노래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즉 “내 곁에 있어 줄 필요는 없으니, 그냥 동등한 권리만 달라.”라는 것이다. 시몬은 이 노래를 통해서 1963년 흑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미국 내 동등한 권리를 위해 저항해 온 사람들에게 특히나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항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저항 음악을 만들어 온 작곡가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부르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은 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라 데에 있다. 그러한 저항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는 밥 딜런은 심지어 2016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니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러나 저항 음악 그 자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음악에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힘은 있다. 한편, 생각과 말하기가 이루어진 다음의 진정한 변화는 여전히 우리들 손에 달려있다.

Track 16

**WOMAN:** Reading 16, 사진

최초의 카메라는 1685년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카메라에 올바른 유형의 인화지를 고안해내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현재 사진으로 알고 있는 것은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좋은 유형의 카메라가 개발되었고 사진가들은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사진을 찍어보려고 했다. 그에 따라 사진도 새로운 예술로서 빠르게 변모하게 되었다.

초창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이 실존하는 것만을 담아내는 기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카메라의 기능은 그보다 더 다양했다. 사진가들은 머지않아 사진 속에 담긴 특정한 사람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한편,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희미하게 보이도록 효과를 주는 기술을 터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및 카메라의 노출 조절 방식도 파악하게 되었다. 이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예술로서 사진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사진가는 그보다 더 많은 기술을 해낼 수 있다. 그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수정 작업을 한다. 사진을 합성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서로 다른 사진 속의 사람들을 하나의 사진 안에 합치는 작업과 같은 것이다. 또한 보정 작업을 통해서 인물을 더 젊게, 혹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 오늘날의 휴대폰 내장 카메라는 모든 인물을 더 예쁘고 멋있게 보이도록 하는 사진 수정도 가능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 공유 방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의 사진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을 공유하려면 책을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쉽게 자신의 사진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매우 젊은 사진작가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예술품을 만들고 또 공유할 수 있다.

Track 17

**MAN:** Reading 17, 초화산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산 폭발은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였다. 서기 79년, 베수비오 산이 폭발한 사건이다. 이 폭발로 무척이나 뜨거운 화산재가 폼페이 도시를 뒤덮었는데, 너무 많은 양의 화산재가 도시의 모든 부분을 덮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존재는 약 1,5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베수비오는 대단히 큰 화산은 맞지만, 그 폭발이 가장 큰 규모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것은 오히려 꽤 작은 규모의 폭발이었다.

규모가 가장 큰 화산을 우리는 초화산이라고 부른다. 초화산은 1000km3 이상에 이르는 화산재와 암석을 공중으로 발산한다. 이는 폼페이를 뒤덮은 화산재 양의 약 천 배 이상에 달하는 양이다. 초화산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은 미국 옐로 스톤 국립 공원에 있는데, 이것은 약 63만 년 전에 마지막으로 폭발하였고 그때 55km 너비의 80km 길이를 가진 구멍을 만들었다.

만약 옐로 스톤의 화산과 같은 초화산이 오늘날에 다시 폭발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수천수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하게 될 것이고, 그 후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폭발의 후유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폭발에 의해 공중으로 치솟은 화산재와 암석은 구름을 만들어서 세상을 긴긴 검은색의 겨울로 만들고 마는데, 이때 우리가 식량으로 삼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죽는다. 아마도 이 폭발로 인한 재난은 폼페이 때보다도 몇 배는 더 심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폭발이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

일부 과학자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폭발은 다시 한 번 이탈리아에서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자들은 이탈리아의 초화산이 500년이 지나면 다시 활화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폭발한 바가 있으니, 현재에도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다. 이들은 초화산이 언제라도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Track 18

**WOMAN:** Reading 18, 전화, 과거와 현재의 변천사

약 130년 전, 사람들은 집에서 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전화기에는 두 개의 사용 부품이 있었다. 즉 하나는 귀에 대고 들고 있는 부품이고, 다른 하나는 입에 대고 들고 있는 부품이었다. 이러한 초창기 전화기에는 번호를 누를 수 있는 판도 없었다. 사람들은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와 통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비용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이용하게 되었고, 급기야 다양한 기업에서 사람들의 전화를 연결해주는 전화 교환원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교환원의 역할은 전화한 사람과 그가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일이었다. 예컨대 전화기를 들고 “교환원 님, 메인 스트리트의 제인 스미스에게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식이다. 그리하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었다. 한편 전화 연결 시간은 때에 따라서 꽤 오래 걸리기도 했다.

1892년에는 번호판이 포함된 전화기가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 전화기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사용 또한 용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전화기를 들여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가 되었을 때에는 미국 내 거의 모든 가정집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는 한 가족 전체가 하나의 전화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전화는 차례대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때에는 거리와 상점, 그리고 사무실에도 전화기가 놓였다.

1980년대에는 최초로 차량 내에 전화기(카폰, 자동차 전화)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크기가 너무 크고 비용까지 비싸서 휴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전화기는 다시 한 번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연락하는 사람과 화상 통화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과 인터넷 연결도 가능해졌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이어지게 될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

Track 19

**MAN:** Reading 19, 비행 배우기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비행을 꿈꿨다. 처음에는 새처럼 날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날개를 만들어 팔에 붙여보기도 했다. 그러나 새의 몸체와 인체는 그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1783년에는 인간이 최초로 진정한 비행에 성공했다. 프랑스의 어느 두 형제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가볍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종이로 가방을 만든 다음 불 위에 올려보았다. 그러자 가방은 이내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차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열기구가 탄생한 배경이다.

형제는 열기구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동물을 싣고 공중에 띄워보았다. 그러자 기구가 비행을 시작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풍선에 사람을 태운 후 띄워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비행의 순간이 되었다. 이 열기구는 오늘날에도 이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비행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글라이더에 관한 아이디어였다. 글라이더에는 날개가 달려 있지만, 이 날개는 움직이지 않고 동력도 없었다. 그래서 글라이더는 사람의 통제 및 조종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1800년대에는 최초의 자동차가 발명되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사람들은 글라이더에 자동차 모터를 다는 것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의 비행기가 되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비행은 두 미국인 형제가 동력을 이용하여 최초의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을 때의 일이다. 그리고 1903년에는 그들의 비행기가 공중에 12초간 떠 있었다. 지금 들으면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 세상을 바꾼 것은 바로 이 12초의 시간이었다.

Track 20

**WOMAN:** Reading 20, 휴대폰 중독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예컨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혹은 반대로 잠을 충분하게 자지 않는 행위처럼 말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선을 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노력한다. 그런데 어떤 것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는데, 그 예가 바로 휴대폰 사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휴대폰을 사용한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음악을 듣기도 한다. 이는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잠깐만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런 사람들은 휴대폰을 언제나, 그것도 하루 종일 이용하고는 한다. 이것은 분명 해로운 행동이다.

단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이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쇼핑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마는 것이다. 휴대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행위도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구와 직업, 그리고 돈을 잃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 사용량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혹시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같이 자는가? 혹은 휴대폰이 곁에 없으면 안절부절하거나 우울하지는 않는가? 혹은 하루 동안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가? 만약 이 질문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그것은 휴대폰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용량을 줄이고 싶은가? 때로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하루 중 몇 시간을 꺼두는 것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자.

Track 21

**MAN:** Reading 21, 용돈

용돈이란 부모님이 당신에게 매주 주는 약간의 돈을 일컫는 말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썼는가? 만약 그렇다면 주마다 얼마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가? 용돈을 주는 것은 자녀가 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의 단위로 용돈을 주며,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큰 자녀에게는 한 달에 한 번의 단위로 용돈을 준다.

주 단위로 어린 자녀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면, 아이들은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음식을 사 먹는 데 용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용돈으로 주는 금액은 작은 단위이므로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물건을 사면서 가진 돈을 다 써버릴까 염려할 필요도 없다.

한편, 그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많은 자녀에게는 월 단위로 보다 큰 금액의 용돈을 줄 수 있다. 이 아이들은 소비 방식에 대하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대의 자녀이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소비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으로 용돈을 활용해도 좋다. 그리하면 아이들은 금액이 더 높고 품질이 좋은 무언가를 사기 위하여 돈을 절약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용돈의 효과를 믿지 않는 부모도 있다. 그들의 생각에도 일리는 있다. 이러한 부모는 용돈으로 인하여 자녀가 돈 버는 일을 쉽게 여기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인이 쓸 돈은 직접 일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나이로 성장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돈을 벌어보기를 바란다.

Track 22

**WOMAN:** Reading 22, 마케팅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광고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케팅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광고가 마케팅의 커다란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마케팅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광고보다도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

마케팅은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의 범주에 드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업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알게 되면, 그 요소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즉 이러한 요소를 적용하여 판매하게 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예산도 조절해 나간다. 그런 다음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제품 제작 예산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그에 대한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는 제품의 타깃이 되는 소비자를 찾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를 붙잡기 위하여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요소가 적절한 효과를 나타낼 때, 기업에서는 마침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 판매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들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rack 23

**MAN:** Reading 23, 애플 대 애플

애플은 음악을 판매하는 유명한 기업으로, 아이튠즈 스토어를 만들었다. 이는 전 세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음악 스토어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아이튠즈 덕분에 전보다 더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애플이야말로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에 변화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명한 아이튠즈도 하마터면 탄생하지 못할 뻔한 사연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네 사람, 바로 비틀즈 때문이다. 1968년, 비틀즈는 그들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음악 회사를 차렸다. 그들은 회사명을 애플 레코즈라고 하였고 무척 간결한 초록색 사과 그림을 로고로 사용하였다.

1977년에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 컴퓨터라는 기업을 차렸고 사과 그림을 로고로 활용했다. 비틀즈는 이 소식에 불쾌했다. 그들은 결국 애플 컴퓨터를 상대로 하여 회사명과 로고 그림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사실 사과 로고는 비틀즈가 먼저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틀린 건 아니었다. 애플 컴퓨터는 결국 음악 사업을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받았다. 그 대신 양 회사 모두 회사명과 사과 로고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물론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였다. 즉 애플 컴퓨터는 음악을 판매할 수 없었고, 애플 레코즈는 컴퓨터를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상황도 그만큼 바뀌었다. 애플 컴퓨터는 음악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틀즈는 또다시 불쾌함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풀기 위하여 서로 대화를 진행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애플 컴퓨터는 그들의 로고 그림은 물론 음악 사업까지도 지켜낼 수 있었다.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어도, 비틀즈가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을지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Track 24

**WOMAN:** Reading 24, 공공기업과 사기업

어떤 기업에는 “공공”이라는 말이 붙고, 또 어떤 기업에는 “사”라는 말이 붙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돈과 규모에 있다.

기업이 공공화되었다는 것은 일반 대중이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식은 뉴욕, 도쿄, 그리고 홍콩과 같은 공공 주식 시장에서 판매된다. 반면에 사기업의 주식은 대중이 살 수가 없다. 그 대신, 사기업의 주식은 가족 경영인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 나누어 갖는다.

공공 기업은 대개 사기업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소규모의 사기업, 개중에는 가족 경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이동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며, 새로운 건물과 기계를 들일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이 공공 기업인데, 일부는 사기업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대기업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곳도 있다. 컴퓨터 회사인 델(Dell)이 그 예이다.

2012년에는 페이스북이 사기업에서 공공기업이 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에도 페이스북은 유명 기업이었지만 주식을 사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페이스북은 오직 웹사이트로만 운영되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주식이 구입하기에는 썩 좋은 유형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Track 25

**MAN:** Reading 25, 사진과 같이 정확한 기억력

어떤 사람은 사진과 같이 무언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카메라와도 같아서 보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책의 모든 페이지는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이나 장소까지도 전부 기억할 수 있다.

일부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진과 같은 정확한 기억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보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분명 존재한다. 한편, 소리에 대한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유형 그 이상에 대하여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항상 옳지는 않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특정인의 기억력이 뛰어난 데 대한 몇 가지의 원인을 제시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억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반면에 일부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좋은 기억력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스 멀른이다. 그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억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다. 2015년에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 기억력 게임 대회에서 21.5초 만에 52개의 카드를 기억하여 1등을 했다. 멀른은 기억력을 활용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기억력을 더 나아지도록 단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고안한 방법은 “기억의 집”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거닐면서” “볼” 수 있도록 마음속에 만든 저장 공간을 말한다.

또한 그가 제시한 기억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으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이 걷고, 그리고 잠을 푹 자는 것이다. 스도쿠와 같은 게임을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비록 사진과 같은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기억력을 더 좋게 만들 수는 있다.

Track 26

**WOMAN:** Reading 26, 울트라 마라톤

마라톤에서 달리는 거리는 42km가 조금 넘는다. 마라톤 뛰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마라톤 거리도 충분히 장거리 레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달리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긴 거리의 레이스를 달리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한 마라톤이 바로 울트라 마라톤이다. 이 마라톤 거리는 무척이나 길다. 모로코의 한 울트라 마라톤은 그 거리만 251km로, 대단히 더운 나라를 가로지르는 레이스다. 그리고 이는 대략 여섯 개의 마라톤을 합친 거리와도 같다.

이들이 울트라 마라톤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의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달리는 레이스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레이스는 전 세계의 아름다운 장소들에서 개최되고는 한다. 장거리 달리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경험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당신이 달리기를 생각하는 방식은 곧 달리는 행위 그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달리는 사람들은 레이스를 뛰기 전에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도 즐긴다. 속력이 더 빨라지면서 시간이 단축되면 분명 기분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나치게 달리는 것도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이 있다. 이러한 울트라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육체적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은 가끔 몸을 쉬지 않고 움직임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리는 물론이고 심장에도 무리가 된다.

그렇다면 울트라 마라톤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점이 너무 지나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모든 일들이 지나칠 때와 마찬가지로 달리기 또한 정도가 과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너무 적게 뛰는 것만큼이나 과하게 달리는 것 또한 건강에 해로운 게 아닌지 궁금해하기도 한다.

Track 27

**MAN:** Reading 27, 설탕과 치아

아이를 돌보는 일은 부모들의 주요 걱정 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전 세계 어느 부모에게나 마찬가지이다. 과거, 살아가는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을 때,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는 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도 줄어들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도, 부모가 아이를 보다 제대로 돌보는 일에 대한 이해 정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요즘에는 아이들의 치아를 신경 쓰는 일이 하나의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치아 교정과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약 4만 명의 영국 어린이들이 충치를 발치하기도 했다. 의사는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설탕을 꼽는다. 아이들이 당도가 높은 음식과 음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는 까닭이다. 당도가 높은 음료는 저렴한 데다가 어느 곳에서나 구할 수가 있다. 이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많다. 예컨대 고당도 음식이나 음료에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당도 높은 식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덜 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어린 나이에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가르쳐주는 것이다. 혹은 치과 의사가 학교를 찾아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지 않은 부모가 자녀들을 치과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있으니, 차라리 치과 의사가 아이들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하다. 설탕과 치아의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자명하다. 그런데 만약 지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늦어버리고 말 것이다.

Track 28

**WOMAN:** Reading 28, 좋은 패스트푸드

오늘날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위하여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데, 간혹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패스트푸드 식당이다. 한편, 우리가 가끔씩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여 그것이 꼭 해로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당신이 패스트푸드 식당에 있을 때 생각해볼 수 있을 몇 가지 생각들이다.

먼저, 이로운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름이 적게 함유되어 있거나 아예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음식 및 무설탕 음식을 선택해보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도록 한다. 다양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설탕 첨가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하면 치아 건강에 더 좋을 것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물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만큼 그것을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다. 음식이나 음료는 많은 양을 주문할 필요가 없다. 혼자 먹을 때에는 스몰 사이즈나 하프 사이즈를 주문하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 친구나 가족과 먹는다면 하나를 주문하여 나누어 먹는 것도 방법이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음식을 테이크아웃 용으로 주문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음식을 더 적게 먹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저녁을 패스트푸드로 해결하게 된다면 테이크아웃 용으로 주문해보자. 집에 있는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일부는 다음에 먹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당신에게 이롭다.

Track 29

**MAN:** Reading 29, 별똥별

혹시 별똥별을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이 별똥별이라는 것은 진짜 별이 아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은 실은 암석이다. 이 암석은 지구에 다다를 때까지 우주를 날아다니며,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불타버린다. 이러한 암석은 대부분 그 크기가 무척 작기 때문에 지구의 땅에 닿기도 전에 타버리고 만다. 물론 보통의 작은 암석보다 더 큰 암석이 지구에 부딪치기도 하는데, 지구는 상당히 큰 곳이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무언가에 부딪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이러한 별똥별을 한 번에 많이 구경할 수 있는 밤은 따로 있다. 그런데 별똥별은 왜 특정한 날 밤에만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는 것일까? 그것은 그날이 실제로 지구가 혜성의 끝을 통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혜성은 지나가면서 작고 큰 암석으로 이루어진 긴 꼬리선을 남기는데, 지구가 그 혜성을 지나갈 때 혜성 꼬리의 암석들이 대기를 만나서 불타오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수많은 별똥별을 한 번에 보게 되는 것이다.

이따금 별똥별은 맑은 날 밤하늘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늘이 맑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별똥별을 보는 데 있어서의 최적의 장소는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이다. 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늘의 그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별똥별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의 정확한 지점을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별똥별이 다수 떨어질 예정인 날이라면, 하늘의 어느 방향을 보아야 별똥별을 볼 수 있을지 과학자들이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Track 30

**WOMAN:** Reading 30, 우주 쓰레기

지구 주변 우주에는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데,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래된 음식이나 박스와 같은 그런 쓰레기가 아니다. 우주 쓰레기는 대개 인간이 우주로 쏘아 올린 다양한 부품 기계들로, 이는 한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쓸모가 다하여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들을 말한다. 이 쓰레기는 그 크기가 다양하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어서 이것이 우주선을 강타하게 되면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약 백만 개 이상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데에 있다. 그저 계속해서 지구 주변을 돌고 돌 뿐이다.

쓰레기 중 일부는 지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뜨거운 열을 발산하며 지구의 땅에 부딪치기도 전에 대기권에서 타버리고 만다. 이따금 이러한 현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는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똥별과 흡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로 다시 돌아온 쓰레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다수의 쓰레기는 지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쓰레기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려면 수천 년은 지나야 할 것이다.

모든 우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 사과보다 더 작은 쓰레기는 우주에서는 보는 것조차도 어렵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크기가 큰 우주 쓰레기 조각들을 신중하게 관찰하여 우주인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해주는 것뿐이다.

Track 31

**MAN:** Reading 31, 은하수

은하계는 약 2천억 개 이상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리의 별인 태양을 포함하고도 수십억 개의 행성과 달이 더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구는 은하계의 일부이므로 우리는 안에서 은하계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은하계의 나이는 약 130억 년 이상이다.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인간은 은하계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다. 이집트인들은 은하계에 기도를 올렸고, 그리스인들은 이름을 붙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이러한 성군 주변의 하늘 색감이 우유 빛깔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은하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무수히 많은 빛만을 볼 수 있었다. 그 후 1610년에는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이용하여 은하수에 속한 다양한 별들의 일부를 최초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1920년까지는 이 은하수의 규모가 그저 무척 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은하수가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은하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래된 별은 소멸하여 흩어지고 그 잔해는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 이러한 잔해는 다른 잔해와 합쳐지면서 그 크기가 더 커지고, 그렇게 새로운 별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 은하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제자리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망원경으로 은하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관찰해야 한다.

Track 32

**WOMAN:** Reading 32, 외계 행성 생명체

다른 별의 행성에서의 생명체를 찾는 일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사실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한 남자가 대단히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드레이크는 얼마나 많은 별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현재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 약 2천억 개 이상의 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별들 가운데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 어느 정도 존재할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이 별들이 백만 분의 1의 확률로 행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행성을 포함하는 별이 여전히 200조 개가 존재한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모든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 확률상 생명체가 100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여전히 2조 개나 있는 셈이다.

그다음,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지만, 100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은 200억 개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행성의 100개 중 하나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의 행성은 2억 개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성에 존재하는 100명의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한다면, 그러한 환경과 유사한 약 200만 개의 행성에서도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다른 행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Track 33

**MAN:** Reading 33, 전시 상황

전쟁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독일이 치른 전쟁이었다. 이때, 미국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일인을 향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음식과 문화에 대한 공격이었다.

독일에는 햄버거가 최초로 탄생한 함부르크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핫도그로 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의 탄생지, 프랑크푸르트도 있다. 이 두 음식은 미국인이 상당히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이들은 음식의 이름에 불만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 기업과 식당에서 이 음식들의 판매를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햄버거의 이름을 “솔즈베리 스테이크(햄버그 스테이크)”로 바꾸어 불렀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의 이름은 “리버티 소시지”가 되었다. 독특한 이름처럼 보이겠지만, 두 음식에 이 같은 새로운 명칭을 붙인 덕분에 기업과 식당에서는 판매량을 다시 늘릴 수가 있었다.

또한 미국인들은 국내 독일어 및 문화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도 줄이려고 하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독일 출신 미국인 가정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독일어 교육을 멈추었다. 이때 미국인들은 독일어 책을 불태웠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독일 출신 미국인들에게 특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게 하여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취업을 규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현상은 영국에서도 벌어졌다.

오늘날에는 미국과 독일이 서로 우방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전쟁이 군인 및 지역 문화에 끼치는 이와 같은 폐해를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Track 34

**WOMAN:** Reading 34, 성인이 되는 것

언젠가 더는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으로 거듭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은가? 이는 과연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공통 사항일까? 사실 아동 및 성인이 되는 것과 관련한 법은 나라마다 무척이나 다르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 소년과 소녀의 경우에는 13세가 되는 해에 큰 파티를 연다. 또한 일본에서는 청소년이 스무 세가 되는 해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기도 한다. 이들은 즐거운 파티로 성년의 날을 기념한다.

그런데 일부 문화권에서는 성년의 날을 어려운 의식으로 기념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바누아투의 펜테코스트섬의 경우에는 젊은 청년이 발에 줄을 묶은 채로 높은 장소에서 뛰어내려야만 한다. 또한 브라질의 한 지역에서는 12세가 된 소년의 손을 성난 개미들로 덮어 그 상태로 10분을 견디게 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한다.

아동과 성인을 대하는 방식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쿠바와 니카라과에서는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1세에 선거권을 부여한다. 음주와 흡연, 그리고 운전에 관한 법도 각각 다르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음주를 16세부터 허용하는 한편 운전은 18세부터 허용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즉 음주 허용 나이는 18세 내지 19세부터이지만 운전 나이는 16세부터이다.

아동과 성인에 관한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을 끌어내기도 한다. 예컨대, 당신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면 어느 문화를 따라야 할 것인가?

Track 35

**MAN:** Reading 35, 여성의 휴일

1980년, 아이슬란드에서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도 최초의 여성 지도자였다. 그녀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배경이 되어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보다 5년 전인 1975년, 아이슬란드의 여성이 하루의 휴일을 가졌던 것이다.

1975년의 어느 날, 아이슬란드의 모든 여성은 남녀평등을 위한 운동으로 모든 일을 중단했다. 그날, 여성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돌보지도 않았다. 수많은 여성들이 아이슬란드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한편, 여성이 이러한 시위운동을 하는 동안 남자는 출근을 해야 했고 여성이 도맡아 하던 평소의 일을 해내야 했으며, 아이 또한 돌보아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상황이 원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이 가진 하루의 휴일을 계기로 아이슬란드 여성의 힘은 물론, 그녀들의 평등에 관한 주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황은 그때부터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1975년에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단 세 명의 여성만이 존재했던 반면, 2015년에는 그 비율이 정부의 절반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아이슬란드는 남녀평등 대우에 관한 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남녀평등이 발전한 아이슬란드에서조차도 평등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 나라는 1975년 이래로 이미 많은 변화를 보여주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남녀가 동등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

Track 36

**WOMAN:** Reading 36, 민주주의로서의 투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형태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누구나 정부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국가에서는 득표율이 높은 사람 또는 집단이 곧 정부를 구성한다.

투표권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누구나 투표에 자격이 있는 나이가 되면 투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투표권은 그저 투표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것 또한 권리라는 것이다. 그들은 원하지 않을 경우 투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투표권 또한 그들의 권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투표자와 기권자 간의 차이점은 나이대 별로 종종 다양하게 발견되고는 하는데, 예컨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투표권이 있음에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 만큼 자주 투표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어느 쪽이 옳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의 입장마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하여야만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또한 모든 이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편, 기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는 옳은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권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권자들은 단지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기권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편의 입장에 서든, 투표를 할지 기권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Track 37

**MAN:** Reading 37, 창조 신화

모든 종교에는 창조 신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진 배경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개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다.

마야인들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두 명의 강력한 신이 세상을 만든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은 그들을 사랑해 줄 인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신은 세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젖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는 곧 조각조각 부서지고 말았다. 그다음에는 나무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이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신들은 옥수수를 이용하여 그들을 사랑해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결국 만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에는 신이 인간을 혼자서 만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신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스 창조 신화는 세상 각각의 부분들을 관장하는 남자신과 여자신으로 가득한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는 싸우기도 하며 빛과 하늘, 그리고 바다와 같이 일부와 일부가 만나 세상을 이루기도 한다.

힌두 창조 신화의 경우에는 신들이 서로 힘을 합쳐 강력한 존재를 무찌른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군림하던 이 강력한 존재가 죽었을 때, 그의 몸은 버터가 되었고 이 버터가 곧 지구의 모든 동물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또 다른 힌두 신화에서는 세 명의 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한 명의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또 다른 신은 이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나머지 한 명의 신은 이 세상을 다시 파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한다고 전하고 있다.

Track 38

**WOMAN:** Reading 38, 다신, 또는 유일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인 이슬람과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강력한 신, 즉 유일신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의 신이 아니라 다수의 신을 믿는 종교도 존재하는데, 이들 신은 많은 경우 수백 명에 달하기도 한다.

오래된 고대 종교 중 다수가 이처럼 다수 신을 믿는다. 수천 년 전에는 그리스인과 이집트인, 로마인, 그리고 아즈텍인들이 모두 다수 신을 믿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힌두교와 신도 또한 다수 신을 믿는 종교에 해당한다.

다수 신을 믿는 종교에서 일부 신은 날씨를 다스린다.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은 번개를 다스렸다. 그리고 바이킹족에게는 이 번개의 신이 곧 토르였다. 제우스와 토르는 모두 무척이나 강력한 신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곧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날씨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신들은 별과 행성의 일부이기도 했다. 로마인과 이집트인들에게는 모두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신이 있었다. 그들의 신은 강과 동물, 마실 음료, 심지어 생명과 죽음 그 자체와 같이 세상의 수없이 다양한 부분들을 다스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처럼 다양한 신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누군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대규모 집단의 존재가 유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 혹은 친구를 갖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또한 대단히 중요한 측면에서 다수 신을 믿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즉 타인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수 신을 믿고 있다면, 누군가 한 명 이상의 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 된다.

Track 39

**MAN:** Reading 39, 기독교

기독교는 22억 명 이상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남자의 생애와 가르침을 따르는데,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기독교는 서기 50년 경에 시작된 종교이다. 처음에는 그 규모가 상당히 작았으나 대단히 빠른 속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기 380년 경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도 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과 함께 “책의 사람들”이다. 이 세 종교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와 신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성경 속 다수의 신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기독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성경의 새로운 부분에서는 예수가 성모 마리아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그 후, 예수는 청년일 때 스승이 되었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는 데에 있다. 예수는 인간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기독교는 선한 역사와 선하지 않은 역사로 가득한, 그야말로 오랜 종교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기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반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독교를 믿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역사가 있다.

Track 40

**WOMAN:** Reading 40, 영혼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영혼을 믿었다. 즉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그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고 믿었다. 영혼에 대한 초창기의 생각은 터키에서 비롯되었다. 약 3천 년 된 오래된 돌 위에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간다고 적혀있었던 것이다.

재채기를 할 때 “몸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영혼과 관련된 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에서 비롯된 믿음인데, 초창기 신도들은 누군가 재채기를 할 때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육체에 붙잡아 두려고 “몸조심하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도 영혼이 없으면 누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인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영혼을 믿어왔으나, 최근에 들어서야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일부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혼이 있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은 어떨까? 사람들은 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 누군가는 모든 동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또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누군가는 동물이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낄 수 없으므로 영혼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물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만약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파리에게도 개나 고양이와 같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